

I. 문제의 제기

- 일본은 이미 2005년에 초고령사회에 진입하였으며, 고령자를 前期고령자(65~74세)와 後期고령자(75세 이상)로 세분할 필요성도 대두됨.
 - 일본의 고령화율은 1970년 7%(고령화사회), 1994년 14%(고령사회), 2005년 20%(초고령사회)를 넘었고, 2011년 현재 23.3%를 기록
- 고령화는 전 세계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현상이지만 일본의 경우 그 정도 및 속도에 있어서 다른 나라들보다 빠르게 진행되고 있음.
 - 고령화사회에서 고령사회로 이전될 때까지의 소요시간은 프랑스 115년, 스웨덴 85년, 영국 47년, 독일 40년 등이나 일본의 경우는 24년에 불과
- 우리나라의 경우 2000년에 7.2%였던 것이 2017년에 14.0%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불과 17년 만에 일본보다 빠른 속도로 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

II. 고령화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

1. 실물부문에 미치는 영향

- 생산연령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소비가 위축됨에 따라 경제성장을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
 - 생산연령 인구는 향후 50년 간 약 45%가 감소할 것으로 전망됨.
 - 세대별 지출액은 세대주의 연령이 50대 전반까지 증가하였다가 그 이후는 세대주의 연령 상승과 더불어 감소하는 경향
- 사회보장지출이 매년 1조엔을 상회하는 속도로 증가함에 따라 사회보장제도의 지속가능성도 의문시